

〈문화사 속의 바이러스〉

‘죽음의 군대-페스트’ 文明異狀 유발

글_주경철 서울대 인문대 서양사학과 부교수 joukc@snu.ac.kr



말세 의식이 널리 퍼진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는 고행 행진에 참여하였다.

인류가 문명 단계에 들어서고 대규모 집단을 이루며 살게 된 이후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 가지 전염병에 시달리며 살아 왔다.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전염병은 차라리 인류 역사의 상수(常數)라고 할 수 있다. 각 문명은 그 나름의 질병체계와 또 그에 대한 나름의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전염병은 인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전염병 중에서도 특히 악명높은 사례가 여럿 있다. 14세기 유럽에서 순식간에 인구의 1/3을 앗아간 페스트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전염병이 인간의 삶과 문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유럽 페스트의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자.

中世, ‘채찍질 고행’ ‘죽음의 무도’ 유행시켜

대부분의 역사상 전염병들이 그렇듯이 페스트 역시 정확한 실태는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다.

페스트는 1348년에 갑자기 유럽에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스텝지역에서 기원하여 캐러밴에 의해 크림미아지역으로 옮겨 왔고, 여기에서 제노아의 상선(商船)이 이 병균을 메시나와 마르세유로 들여왔으리라는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경로지만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병의 증세 역시 모호한 측면이 많다. 기드 솔리악의 『외과학대전(外科學大典)』(1478~1895년 동안 69권을 찍었다는 의학서적 최대의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에서 서술하는 1348년의 ‘페스트’ 증세를 보자: “이

병은 특징적인 두 주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 주기에는 약 두 달 정도 열이 나고 피를 토하며, 둘째 주기에는 종양과 폐의 돌발적 출혈이 보인다.” 오늘날의 의사들은 이 기록을 보고 이 병이 어떤 병이라고 판단할 것인가? 당시 의사들의 분석이 그리 신통치 않았으리라는 점은 파리대학교 의학부 교수들이 흑사병의 발발 원인에 대해 “1345년 3월 20일에 토성, 화성, 목성이 물병좌에서 연결된 때문”이라고 교황 클레멘스 6세에게 보고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흑사병 원인은 물병좌 탓?

잘 알려진대로 페스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선(腺)페스트는 신경절에까만 딱지가 생겨서 부으며 동시에 열이 나는 증상을 보이는데 이 병의 치사율은 약 70%로 알려져 있다. 폐 페스트는 호흡기를 공격하는데 치사율이 100%인 가공할 병이었다. 게다가 환자가 내쉬는 숨을 들이마셔도 전염이 되므로 환자와 같은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정도로 전염력이 강했다.

이런 엄청난 병세로 인하여 유럽에 페스트가 나타난 이후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흔히 페스트가 발병한 이후 몇 달 안에 유럽 인구의 약 1/3이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인구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만큼 분명한 사실인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최근의 연구들도 이 점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듯하다. 어떤 연구자는 가뜩이나 기근과 전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페스트가 기승을 부려 장기적으로는 70%의 인구 감소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연구자는 이런 수치들이 과장되었음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유례 없이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이 결코 과장만은 아니라는 점은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난한 동네사람, 청소한 듯 사라졌다”

예컨대 부르고뉴의 지브리라는 마을은 이 시대의 세례 및 매장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인구 추세를 어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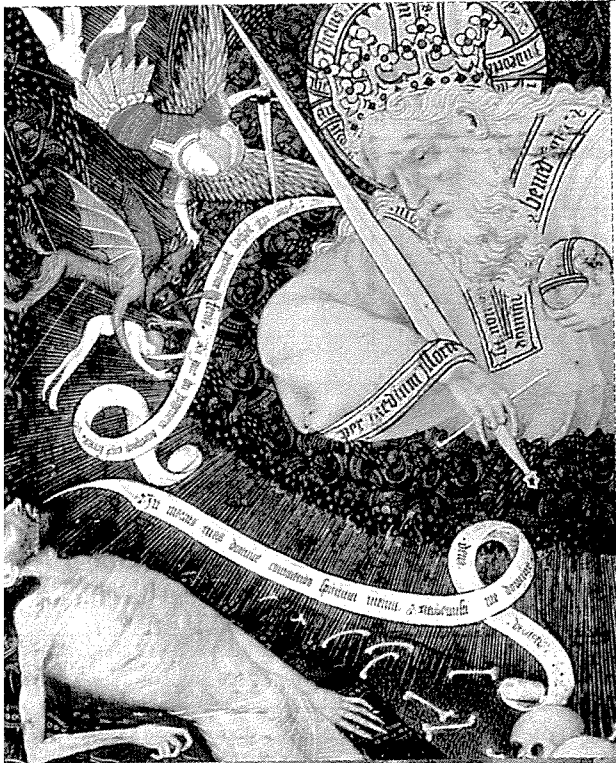
제너의 종두법 발견은 유럽을 두창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확실하게 추적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의 인구는 1천 800명이었고, 14세기 초의 정상적인 해에는 1년에 사망자 수가 10~18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페스트가 들이닥친 1348년 한 해에 700명이 죽었다. 일격에 40%의 인구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페스트 피해를 겪지 않은 극소수의 마을과 도시들이 오히려 예외였다. 이렇게 한번 들어온 이 병은 아예 유럽에 정착해 버렸다. 이후 대개 1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페스트가 번져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페스트가 유행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죽는가? 다음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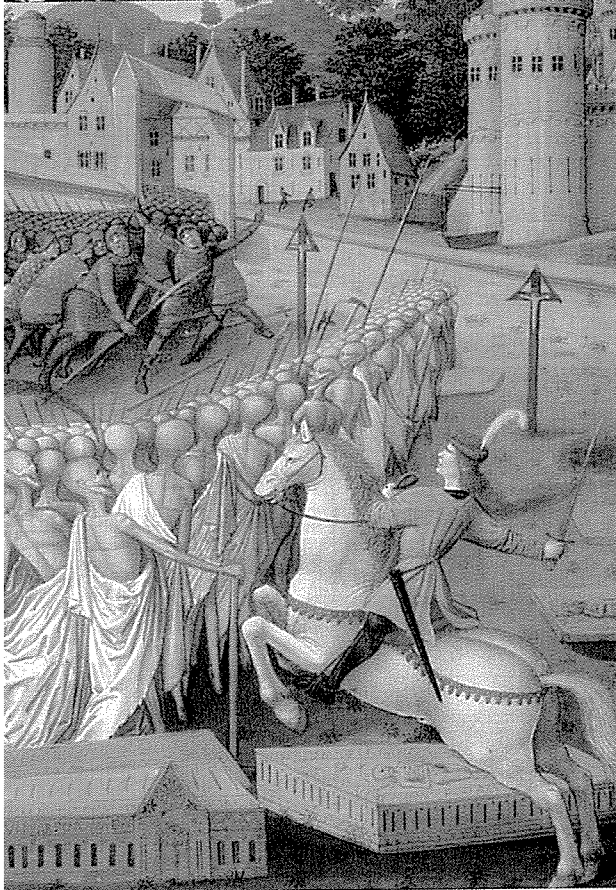
가난한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나쁘고 따라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다, 예방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의 말대로 페스트는 계급관계를 악화시킨다. 부자는 살고 가난한 자들이 죽는다. 이것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청소한 것처럼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페스트에 대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발병 즉시 피신하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삼았던 것으로 <데카메론>이란 유명한 사례이다. 이 이야기는 피렌체의 귀족 남녀들이 페스트를 피해서 시골 별장으로 피신한 뒤 무료를 달래기 위해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한다는 형



페스트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죽음에 대한 강박적인 주제의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죽은 자의 영혼을 두고 천사와 악마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

페스트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 전염병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 낫을 들고 전진해 오는 죽음의 군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아래)



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학적 장치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부자들이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 중에 전염병이 돌면 시골의 임차인이 지주에게 방을 내줄 것을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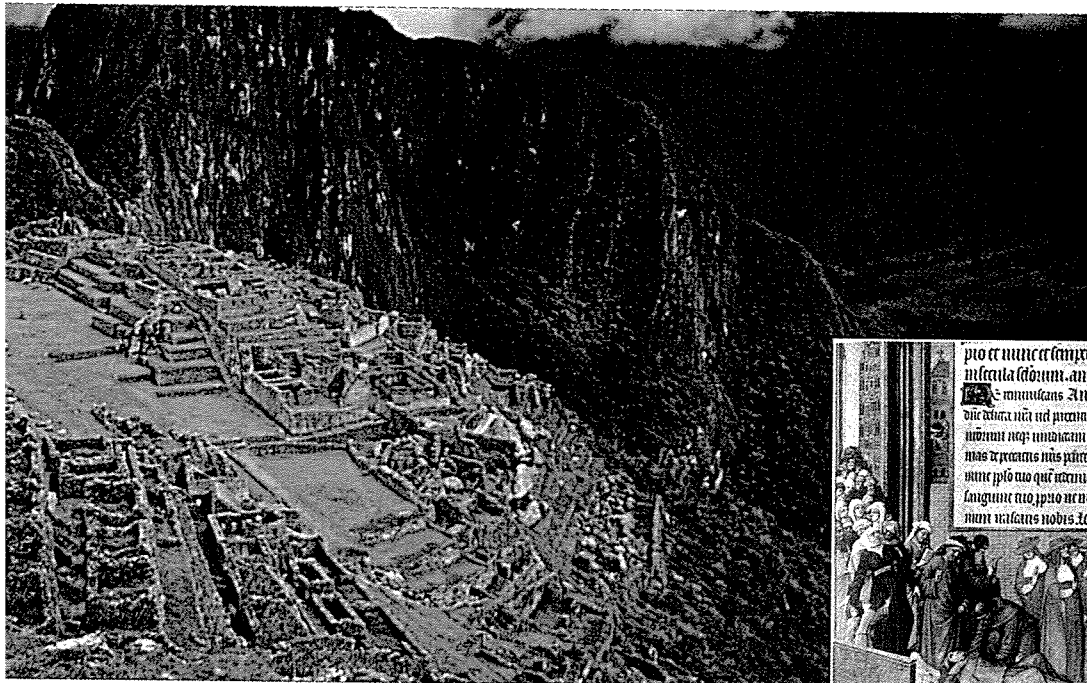
전염병 진정되면 집안 소독한 후 '실험녀' 고용

전염병이 진정되어서 피신갔던 부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들은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하곤 했다. 사부아에서는 자신의 집을 확실하게 소독하고서도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가난한 여자를 고용하여 몇 주 동안 살아보게 했다. 이름하여 '실험녀(essayeuse)'가 그것이니, 인간 마르모트가 따로 없는 것이다.

페스트가 도는 시기의 풍경은 삭막하기 그지없다. 변화했던 도시의 거리가 텅 비고 아예 한 지역 전체가 봉쇄되는 경우도 많았다. 부자들은 집 문에 판자를 쳐 놓고 피신했지만 그렇다고 약탈을 피할 수는 없었다. 1664년 런던에 페스트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왕이 런던을 떠나 옥스퍼드로 이주해 버렸고, 이를 따라 귀족들과 부자들도 이주해 갔다. 무엇보다 법률가들이 모두 런던을 떠났기 때문에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병의 상태가 많이 완화되고 유순해졌다는 18세기에도 사정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1720년에 마르세유에 페스트가 번졌을 때 인구 절반이 사망했고, 길거리에서 개가 사람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심성이 고을 리 없다. "이 병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개보다 더 잔인하게 대했다"는 새뮤얼 펍스의 기록이 그런 상태를 잘 말해 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과 친숙한 문화형성

페스트의 발병은 사람들의 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는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갔다. 마을 사람의 절반 가까



아메리카 대륙의 침략자들은 원주민에게 두창과 홍역, 인플루엔자를 옮겨 잉카와 아즈텍 문명을 사라지게 했다.

페스트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교황이 직접 주도하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수도승 한 명이 페스트로 쓰러졌다.



이가 죽고 나자 더 이상 농사짓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중세말에 많은 전답이 황무지로 변해버렸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폐촌(廢村, lost village) 현상이 나타났다. 농민들로부터 지대를 받는 귀족들 역시 위기에 봉착했다. 쉽게 말해서 착취하려고 해도 착취할 대상이 없으니 귀족인들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중세말 유럽 사회경제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페스트는 사람들의 심성에도 깊은 상처를 각인시켰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죽음에 친숙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미 가족과 친척 중에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도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 장담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죽음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memento mori)!

치료방법 없어 피신... 「데카메론」 탄생의 계기

페스트가 기승을 부리던 중세 말만큼 사람들이 죽음과 저 세상에 집착한 때도 드물다. 말세 의식이 널리 퍼진데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덮쳤다.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 자기 몸에 혹은

서로 옆 사람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참회의 행진을 하는 '채찍질 고행(flagellation)'이 유행했다. 문명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라는 주제가 널리 유행한 것도 이 시기이다. 해골 모양의 사신(死神)이 낫을 든 채 아름다운 처녀, 망치질하던 대장장이, 혹은 한참 설교중인 수도사를 강제로 끌고 간다. 언제 누가 죽음 앞에 끌려갈지 모르는 것이다.

이처럼 중세 말에 유럽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심대한 위기를 겪었다. 근대 유럽 세계는 바로 그 위기를 헤쳐나오면서 형성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중세 세계를 철저히 해체한 중세말의 위기를 겪음으로써 다이내믹한 근대 유럽이 탄생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페스트가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지나친 과장이다. 그러나 유럽의 위기와 그 이후의 거대한 변화의 내면에 페스트의 엄청난 충격이 작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서양사학과 졸업(석사),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박사